투데이 칼럼

김정은 홀로서기

정 복 규
논설위원

지난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었다. 북한은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전날인 14일 밤에는 전야제를 열어 자신들이 최대 명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그런데 올해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 생일을 가리키는 '태양절'이란 명칭을 거의 쓰지 않았다. 대신 '4월 명절, 4월 봄 명절' 등으로 바꿔 불렀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면서 여러 추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어둠이 깔린 김일성광장에 군중들이 모여 군무를 추었다. 광장 위로는 불꽃들이 터지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린 전야제 행사였다.

김일성 부자 동상이 있는 만수대에서는 헌화 행사가 열렸고, 조선소년단 입단식과 전국연합단체대회도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선 다양한 경축공연과 무도회, 체육 경기가 이어졌다.

각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12돌을 뜻깊게 경축한 것이다. 김일성의 생일은 김정일 생일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 명절이다. 북한은 김일성을 태양에 빗대 생일을 태양절이라 부르며 대대적으로 축하했다.

그런데 올해는 달라진 게 있다. '태양절'이라는 명칭 대신 '4월 명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대표적인 관영매체만 보더라도 올해 김일성 생일 당일에 말과 자막을 포함해 2번 언급됐다.

작년 4월 15일에 총 30번 언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 선대의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홀로서기'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대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은 위상으로 설정할 경우 자신의 시대가 상당히 왜소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일종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은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쓰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선대를 신비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김정은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

신비화된 선대의 존재가 오히려 김정은의 새로운 두 국가론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한편 김일성 주석 우상화 용어인 '태양절'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던 북한 당국이 최근 '김일성 김정일 기금'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태양이란 용어는 삭제하고 기금사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을 태양에 비유해 우상화하던 북한 당국은 올해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호칭하지 않고 '4월 명절' '4.15명절'로 불렀지만 김일성 명의로 조성되는 기부금은 그대로 거둬들이고 있어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2년부터 북한은 '국제김일성기금'을 개편해 '김일성 김정일 기금' 이사회를 창립하고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등 세계 각국 대표부들에 김일성·김정일 기금 사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금 사업에 가입한 회원들은 대부분이 북조선과 친인척으로 관련이 있거나 사업상 물류를 교류하던 사람들이다. 중국과 북한 간에 무역거래가 열리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중국 심양과 단동에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 사업에 참가한 중국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금 액수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이 기금을 바쳤으나 이는 기금조약에 명시된 자원적인(자발적인 참여) 원칙을 벗어나 강제로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에서는 매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일 등 1년에 네 차례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

김일성의 상징으로 불리던 태양절이란 말도, 글도 쓰지 말라는 북조선 당국이 김일성 명의로 기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선대 수령들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들의 명의로 돈을 모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고문

코스트코코리아 익산점 입점 소식을 접하며

김 종 기
유명마트 대표

코스트코코리아가 익산에 둥지를 틀고 입점한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전북에서 토종마트를 30여 년간 운영하며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민의 권익 옹호에 노력하면서 되도록 양질의 국산 제품만을 판매하고자 애써온 마트 점주로서 걱정이 앞선다.

조금 시일이 지났지만 우연한 기회에 대전에 소재한 코스트코코리아 대전점에 가 본 일이 있다.

대전점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상품의 구성이 타 대형마트에 비해 수입제품의 비중이 엄청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직접 들여와서 열가에 파는 관계로 쇠고기 파는 곳에서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심지어 마트에서 이동식 농막도 판매하고 있어 우리 현실과 비교되어 이채로웠다.

전주에서 중형 마트를 경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정말 코스트코코리아 익산점이 개설된다면 앞으로 우리 업계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코스트코코리아 익산점에서 농축산물과 다양한 공산품들을 직수입으로 들여와 판매하게 된다면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종 마트들과 전통시장이 어렵게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코스트코코리아 익산점이 개설되면 약 2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코스트코 개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많은 중소형 마트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중소형 마트 폐업 사업장들에서 발생하게 되는 실직자의 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제품이든 국산제품이든 가격이 저렴하면 그곳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경쟁에서 밀린 기존 중소형 마트 사업장들은 고용인력을 줄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풍선효과에 의해 어느 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어느 쪽에서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무조건 세계 글로벌 유통 공룡기업들을 무분별하게 들여와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자국으로 보내고 나면 우리는 거대자본을 가진 유통업체의 속국이 될 것이 뻔하다.

벌써 오래전이지만 우리 고장에서 코아백화점이 유일하게 있을 때 뒤늦게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코아백화점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손님을 실어나르는 등 별별 자구책을 마련하였었다. 그러나 결국 유통 공룡기업인 롯데백화점만 살아남고 코아백화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양한 물건을 파는 양판점으로 변경되어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중소형 마트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국제적인 글로벌 유통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겁기만 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외국 공룡유통기업에서 수입산을 무조건적으로 판매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공산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당제 같은 것도 도입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아울러 중소형 마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바램이다.

사 설

선관위 아빠 찬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가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를 정도로 자녀 특혜 채용은 만연했고 공적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특혜와 편법, 위법이 드러났다.

이른바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의혹은 일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의 주요 통로로 의심되는 경력 채용 10년치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채용 과정마다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모두 1,200여 건에 달했다. 전 사무총장의 경우 8급 지방공무원 아들에게 선관위 채용은 물론 채용 이후에도 '맞춤형 특혜'가 제공됐다.

원서 접수와 함께 해당 선관위가 예정에 없던 선발 인원을 추가했고, 아버지 지인으로 구성된 면접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만점을 줬다.

그 중 한 명은 아들 김씨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도 맡았던 직원이었다. 선관위 내에서 '세자'로 불렸다는 아들 김 씨는 규정과 달리 1년 만에 상급기관인 시 선관위로 옮겨갔고 없는 예산에 관사까지 배정받았다.

한 고위 간부의 딸 채용 청탁에, 일주일 만에 딱 한 명 응시하는 비공개 채용을 열어 만점 합격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연필로 작성하거나 백지 면접 점수표를 받아 수정한 뒤 합격시킨 사례도 여럿 적발했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부당 채용에 관여한 전·현직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혐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22명은 관련 자료를 넘겼다.

채용에 문제가 드러난 자녀들은 법원 판결 전까지 임용 취소나 징계 요구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역 가왕 남진

남진과 나훈아는 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은 아이콘이자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었다. 최근 데뷔 58년 차 가수 나훈아가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반면 남진은 최근 어느 언론사와 만나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남진은 데뷔 60년 차 '영원한 오빠'다. 가요계 선배로 어깨가 더 무거워진 남진의 60년은 히트곡으로만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빛났다.

남진은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1945년생으로 올해 80세인 남진의 본명은 김남진이다.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너와 나', '미워도 다시 한 번', '둥지' 등은 불멸의 히트곡이다.

그는 전남 목포 유달정에서 '목포일보'의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아버지 김분욱 4남 6녀(10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남진은 아버지 덕분에 목포 최고의 부잣집에서 부유하게 자랐다.

당시 신익희, 조병옥 등의 거물 정치인들이 호남 지역에 가면 항상 그의 집에서 머물렀다. 목포 북교초등학교 대선배인 김대중 또한 인사차 자주 들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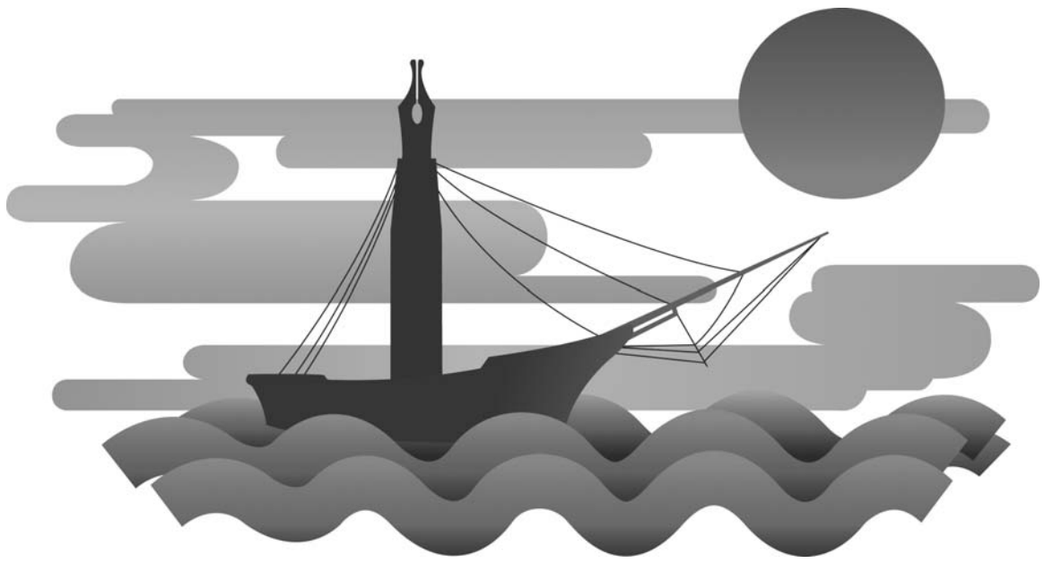
출향 재경 목포 인사 및 작가 박화성 여사도 고향 목포에 방문할 때마다 차 한 잔 마시러 드나들곤 했다.

하지만 결국 첫째 형이 아버지를 이어 신문사 및 정계에 관련된 사업을 이어갔다. 남진은 아버지처럼 정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1962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였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한 후 결국 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이미 가요계의 전설이 된 남진이지만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그의 무대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